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심리적 유형분류 및 성격특성의 이해: 성차별의식과 MMPI-2를 중심으로

이혜지* · 이수정**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다양한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 스톱킹 범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리학적 이론과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스톱킹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연구된 스톱킹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확인하고 심리적 특성에 따라 국내 스톱킹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MMPI-2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스톱킹 범죄자 7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별(통념), 반사회성(충동성), 조종(경계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결과를 분석하여 성차별(통념) 유형에서는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관찰되었으며,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서는 행동통제력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집착적 사고, 그리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톱킹의 다양한 범죄양상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고, 각 유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6.30.2.55>.

❖ 주제어 : 스톱킹, 왜곡된 인식, 심리적 유형, 성격특성, MMPI-2

* 제 1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스토킹 범죄는 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항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졌으나,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행위와 범죄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스토킹 행위는 가. ~ 마.목까지 구체적으로 행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스토킹 범죄는 위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는 단 건으로 보았을 때, 행위 자체가 공격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협적인 행위도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부여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행위 자체에 대한 가해성을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행동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범죄자에게도 심리적으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자체에 범행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자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목적이냐 욕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얻게되는 피해자의 행동 및 관계 변화 등 도구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범죄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Spence-Diehl, 1999). 이러한 행태는 스토킹 범죄가 범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범죄로 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강력범죄의 전조단계로 스토킹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Mohandie, Meloy, McGowan, & Williams, 2006; Mullen & Pathé, 1994).

국내에서 연구한 스토킹 분석에 따르면, 피해 대상은 면식뿐만 아니라 비면식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성(性)적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등 다양한 피해자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2022; 김잔다, 2015; 한민정, 2021).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 이웃 간 층간소음, 지인 간 채무관계, 연인의 내연관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소영, 2022; 김잔다, 2015).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피해대상과 범행 목적에 따라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

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폭탄 문자를 보내는 것과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을 꿈꾸며 주변을 배회하고 수 백통의 구애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톱킹 처벌법의 대상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범죄양상에 나타나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스톱킹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톱킹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톱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스톱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스톱킹 범죄특성과 가해자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유사한 형태로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성격특성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특성에 따른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강력범죄로의 진화가능성을 예견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톱킹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가. 심리학적 이론에 따른 접근

Stets와 Burke는 정체성 통제이론(Identity Control Theory; ICT)을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제와 공격성에 대한 모델을 제안했다(Stets & Burke, 2005). 정체성 통제이론(Identify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자 사고하며 행동한다고 주장한다(Stryker & Burke 2000; Swann, 1990).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Cast & Burke, 2002; Turner, 1987). 그러나 자기정체성에 따라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등 정체성 입증(Identity Verification)을 실패하게 됐을 때 자기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Cast & Burke,

2002).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Stets, 1995). 또는 불일치 정보를 무시하거나 환상을 갖는 등 왜곡된 인식으로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가 나타난다(De La Ronde & Swann, 1998; Pintel & Swann, 2000). 즉,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거나 정체성 재확립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체성 통제이론(ICT)에 따라 스토킹 범죄행동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등 정체성 입증에 실패하게 됐을 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을 대입해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개념이 약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기개념의 안정성을 느끼고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아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친밀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자 하면서도, 행동을 통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표시하여도 거부의를 잘못 해석하거나 무시한다. 이것은 자기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해 보상받고자 계속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것이 가해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립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스토킹이 쉽게 반복되고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라 통제가 강화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이 실패하거나, 정체성에 따른 상황통제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가 점차적으로 공격적인 양상을 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스토킹에서 공격성이 표출되고 나면 정체성 붕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며, 통제력 상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피해자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스토킹 범죄에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기만 또는 통제의 특성은 심리적, 신체적 학대의 점진적 심각성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을 살펴볼 수 있다. 성인의 애착 유형이론은 Bowlby(1969)와

Ainsworth 외 연구진(1978)의 이론을 확장한 개념으로, 그 중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스톱킹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Bartholomew, Henderson, & Dutton, 2012; Bartholomew & Horowitz, 1991; Davis, Ace, & Andra, 2000; Hazan & Shaver, 1987; Patton, Nobles, & Fox, 2010). 불안정 애착유형은(Insecurely attached) 대인관계에서 대립적이고 두려워하며 냉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서 집착형(또는 몰두형) 애착유형(Preoccupied attached)이 스톱킹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Holtzworth-Munroe, Stuart, & Hutchinson, 1997; Miller, 2012; Spitzberg & Cupach, 2007). 집착형 애착유형(Preoccupied attached)은 자기혐오와 자신의 무가치성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의지함으로써 공허함을 채우고자 한다.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자리잡은 자기부정에 대한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충족될 수 없으며, 관계단절이 나타났을 때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등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Miller, 2012). 집착형 애착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체성불안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부재는 정체성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더 매몰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Patton 외 연구진(2010)은 2,78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톱킹 가해경험, Brennan 외 연구진(1998)의 성인 애착유형,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태도, 정서 등 개인적 심리특성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안정 애착유형(insecure attachment)에서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이 관찰될 경우 스톱킹 가해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Patton et al., 2010). 불안정 성인애착은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로 구분하였는데, 애착불안은 거부와 관계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하는 등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전략을 사용하고, 애착회피는 관계요구 자체를 부정하며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등 비활성화(deactivation)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9). 즉, 애착불안은 스톱킹 행위가 과잉활성화 전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집착,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심취하여 나타난 결과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잘못된 방어기제 사용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 고려해 볼 수 있다. Meloy(1998)는 스토킹을 약탈적인 폭력(predatory violence)과 다르게 정서적 표출로 인한 폭력(Affective violence)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정서적 폭력은 분노 또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거부로 인한 자기존재의 위협으로부터 회피하고자 나타나는 폭력으로 설명하였다(Meloy, 1998; Mirsky & Siegel, 1994). 이는 스토킹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가 직접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극단적인 형태의 공격행위보다는 주로 밀치거나, 먹살을 잡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등 간접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Meloy, 1998). 물론 약탈적인 폭력성도 나타나지만, 정신병리적 특성과 관련성이 낮다면 정서적 표출의 폭력성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Serin, 1991; Williamson, Hare, & Wong, 1987).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들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 슬픔, 분노에 대한 방어기제로 피해자를 이상화(Idealization)하거나 투사(Projection)하기도 하고, 치환적 태도(Displacement)를 보이기도 한다(Kernberg, 1984; 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Skoler, 1998). Kernberg(1984)는 동경하는 피해자에 대한 환상이 방해받을 때 원초적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상화(Idealization)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koler(1998)는 피해자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좌절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 대한 분노표출을 투사(Projection)로 설명하였다. Meloy(1998)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피해자와 강한 연결이 되어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질투나 보복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는 치환적 태도(Displacement)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스토킹은 가해자의 분노, 좌절, 질투 등 부정적 감정의 잘못된 해석 및 표출과 강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Brennan & Shaver, 1995; Davis et al., 2000),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접근

정신장애가 없는 스토킹 범죄자들은 상황판단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등 상황판단의 부적절한 인식은 잘못된 통념이나 비합리적 신념 또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사고와 관련이 될 수 있다(Dunlap, 2010; Meloy, 1998). 먼저 잘못된 통념은 선입견적 고정관념, 구시대적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스톱킹 범죄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통념은 성차별적 인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Dunlap 외 연구진(2015)의 스톱킹 통념 수용도(Stalking Myth Acceptance; SMA) 척도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여 스톱킹 통념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스톱킹 통념이 높을수록 스톱킹에 대한 범죄인식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unlap, Lynch, Jewell, Wasarhaley, & Golding, 2015; 이동길, 2015). 스톱킹 통념은 가해자 정당화, 피해자 비난, 사건 축소화,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 구애행동화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가부장적 사고가 통용되던 구시대적인 관념으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강간통념과 같이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요인 중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과 사건축소화에 대한 요인에서 스톱킹 행동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부장적 사고와 성차별적 인식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이동길, 2015; 임인혜, 윤민지, 유성정,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다음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병적인 나르시시즘(Narcissism) 그리고 타인 기만에 대한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권력자로 인식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조종할 수 있고, 조종해도 괜찮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관찰된다(Geis & Moon, 1981; Meloy, 1998). 그리고 타인을 기만하고 조종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거짓말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에 대한 죄책감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ristie & Geis, 1970; Gozma, Vrij, & Bull, 2001).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스톱킹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llen, Pathé & Purcell, 2000).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대인관계 사고는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다. 스톱킹 범죄자들은 B

군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성이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enlen, Birmingham, Solberg, & O'Regan, 1997).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성 불안, 의존 등과 관련이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극단적 분노 표출, 피해자 책임전가 등과 관련이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언급되었다(Meloy & Gothard, 1995). 모두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는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하고 자기개념의 불안정성으로 친밀한 대상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징이 스토킹 행위와 관련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른 범죄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특성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자신을 은폐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관찰하고 간접적인 위협만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Miller, 2012). 그 외에도 사이코패스 성향, 편집증적 사고, 강박적 사고도 스토킹 범죄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eberth, 1996; Mullen et al., 2000; Turner, 2020), 이런 문제들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지지적인 대인관계 경험의 부재는 잘못된 관계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

스토킹 범죄는 범죄행동,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자의 성격, 정신질환 등을 토대로 수많은 유형분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Canter & Ioannou, 2004; Geberth, 1996; Meloy, 1998; Mullen, Pathe, Purcell, & Stuart, 1999; Sheridan, Blaauw, & Davies, 2003; Zona, Sharma, & Lane, 1993). 대부분 면식 관계와 비면식 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크게 구애를 바탕으로 애정적 욕구, 망상 등 비현실적 사고, 극단적 분노표출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1>를 통해 많은 연구들에서 구분해놓은 스토킹 범죄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심혜인, 김소현, 2023).

〈표 1〉 스톱킹 범죄 유형화*

연구자(연도)	유형	설명
Zona 등 (1993)	단순집착형	과거 관계있는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애정집착형	유명인에 대한 일방적 애정 갈구
	애정망상형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착각으로 애정갈구
Geberth (1996)	사이코패틱 성격장애	정신질환 없으나 자극요인으로 인한 스톱킹
	사이코틱 성격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한 스톱킹
Meloy (1998)	단순집착형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사랑집착형	유명인에 대한 일방적 애정갈구
	성욕증	피해자에 대한 과한 애정
	거짓피해자화증후군	피해자의 오인 및 거짓주장
Mullen 등 (1999)	거부당한 스톱킹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와 관계회복, 복수
	복수형(분개형)	피해자에게 공포감, 두려움 유발목적
	친밀감 추구형	피해자의 사랑을 확신하며 관계형성 요구
	무능형	무관심한 피해자에게 관계형성 요구
	악탈형(포식형)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피해자 정보수집
Sheridan 등 (2003)	전파트너 스톱킹	과거 관계있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짝사랑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애정갈구
	망상성 집착스톱킹	망상에 의한 관계형성 주장
	가학적 스톱킹	집착, 통제를 통한 만족감
Canter 등 (2004)	성적 스톱킹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유형
	친밀형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형성 요구
	소유형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공격-파괴형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살로 위협 가능성

* 심혜인, 김소현의 연구(2023)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판결문을 이용하여 스톱킹 행위에 따른 유형분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강소영, 2022; 강소영, 김한술, 2021; 김성희, 성현준, 2021; 심혜인, 김소현, 2023). 강소영 등(2021) 연구에서는 국내 스톱킹 처벌법에 기재되어있는 항목에 따라 스톱킹 행위를 변수로 설정하여 유형분석한 결과 배회형, 점진형, 감시형으로 구분하였다. 배회형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시형은 스톱킹 행위가 지속성을 지닐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감시형은 피해자에 대

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는 없으나 스토킹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진형은 초기 배회형과 감시형에서 진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침입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강소영, 김한솔, 2021). 이러한 유형분류는 스토킹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킹 범죄가 지속될 경우 단계별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성희 등(2021)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범죄에서 전조증상으로 나타난 스토킹 행위를 분석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파괴적, 속박적, 소유적 스토킹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파괴적 스토킹 유형은 피해자의 주변이나 일상을 파괴하는 형태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었으며, 속박적 스토킹 유형은 감시하며 피해자의 사회활동이나 일상을 구속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소유적 스토킹 유형은 뒷조사를 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괴롭히는 형태 등이 파괴적 스토킹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파괴적 유형과 속박적 유형은 사전 계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토킹 행위가 살인의 사전징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성희, 성현준, 2021).

심혜인 등(2023) 연구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동기로 구분하여 친밀한 관계의 애정을 갈구하는 관계요구형, 금전 및 합의 요구, 증간소음 등 문제해결형, 겁주기, 분노표출, 보복 등 분노형으로 분류하였다(강소영, 2022; 심혜인, 김소현, 2023). 이러한 유형분류는 범행동기와 범죄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달라야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유형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범죄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범죄자의 특성에 맞게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교화 가능성 또는 처벌 방안을 정하는데 실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범죄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등 정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판결문은 2차 자료로 판사의 인식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다르게 선정될 수 있고, 법률에 의거한 행동의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킹과 같은 다양한 행동양상을 띄는 범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심리상태,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포괄적인

주변 정보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톱킹 범죄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성격특성에 대해 주로 성격장애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스톱킹 행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심리적 유형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톱킹 범죄자들에게 직접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심리적 유형분석을 시도하고, 그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표본 수집은 편의 표집방법으로 스톱킹 처벌법에 의해 수강명령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스톱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약 2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개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나, 인식척도에서 20% 이상 결측값이 나타나거나, MMPI-2 검사를 전체 무응답으로 제출하거나, MMPI-2 결과 타당도 척도에서 극단적인 이상치가 나타나 신뢰로운 해석이 불가능한 대상자 등 총 25개를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9개의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톱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을 확인하여 심리적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왜곡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안상수 등(2007)의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척도(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 PAI 검사의 소척도 중 경계선적특징 척도(PAI-BOR),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S), 김민정 등(2010)의 기만·조종 척도를 사용하였다(김민정, 이장한, 2010; 안상수 등, 2007; 이동길, 2015; 이수정, 김재경, 2011; 임인혜 등, 2018; 홍상환, 김영환, 1998). 또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II; MMPI-2)를 이용하여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MMPI-2 검사는 병원장면에서 흔히 사용되나, 많은 연구결과에서 범죄자들의 성격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이수정, 공은정, 공정식, 2006;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식척도, MMPI-2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인식척도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큼 표본 크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개인 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잠재집단을 분석하는 대상 중심적 접근의 분석방법보다 변수 간 유사성을 측정하여 집단분류를 실시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Bergman & Magnusson, 1997; 감기영, 전명식, 1994). 유형분석은 다면성별의식 척도, PAI-BOR 척도, SRPS 척도, 기만/조종 척도가 포함되었고,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먼저, 변수를 표준화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Ward의 군집방법으로 제공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측도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 수를 산출하는데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검토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산출한 뒤,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를 각 군집별로 할당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유의성과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킵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MMPI-2)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24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N=79)

성별	명	%
남	59	74,7
여	20	25,3
나이대	명	%
20대	10	12,7
30대	30	38,0
40대	19	24,0
50대	14	17,7
60대 이상	6	7,6
지역	명	%
서울·인천·경기	54	68,4
충청·세종	5	6,3
광주	1	1,3
경상·부산·울산	19	24,0
학력	명	%
중졸 이하	3	3,8
~ 고졸 이하	28	35,4
~ 전문대졸 이하	17	21,5
~ 4년제졸 이하	27	34,2
대학원졸 이상	4	5,1
직업	명	%
무직	17	21,5
비정기직	22	27,8
정기직	40	50,7
결혼경험	명	%
있음	26	32,9
없음	53	67,1
전과(강력범죄)	명	%
있음	26	32,9
없음	53	67,1

<표 2>에서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가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74.7%(59명)로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나이대는 20~30대가 50.7%(40명), 40대 이상이 49.3%(39명)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인 사람이 68.4%(54명)로 표본의 과반수가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인 78.5%(62명)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경험에서는 67.1%(53명)가 결혼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결혼경험은 초혼, 재혼, 이혼, 사별 등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결혼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였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인 집단이 60.8%(48명), 고졸 이하의 집단이 39.2%(31명)로 응답하였다. 마지막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이 67.1%(53명)으로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 있다. 강력범죄 전과는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의미한다.

〈표 3〉 스토킹 범죄특성

(N=79)

피해자와의 관계	명	%	스토킹 기간	명	%
친지 가족	2	2.5	1개월 이하	57	72.1
헤어진 연인	39	49.4	2 ~ 5개월 이하	12	15.2
직장동료, 지인	9	11.4	6개월 ~ 1년 미만	4	5.1
일면식	8	10.1	1년 이상 ~ 3년 미만	2	2.5
비면식	6	7.6	3년 이상 ~ 5년 미만	1	1.3
무응답	15	19.0	무응답	3	3.8

<표 3>에서는 스토킹 범죄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있다.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 연인, 전 배우자 등 헤어진 연인 관계인 경우가 39명(49.4%)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 동료 및 지인은 9명(11.4%), 서비스 제공자 등 일면식의 관계는 8명(10.1%), 피해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비면식은 6명(7.6%)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하가 57명(72.1%), 2~5개월 이하가 12명(15.2%)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스토킹이 지속된 경우가 87.3%(69명) 포함되어 있다.

2.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 분류

〈표 4〉 인식척도간 상관분석

(N=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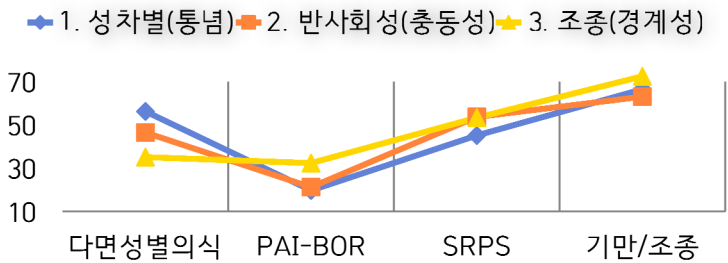
인식척도	1.	2.	3.	4.
1. 다면성별의식	1			
2. PAI-BOR	.035	1		
3. SRPS	.189	.512**	1	
4. 기만/조종	.283*	.387**	.352**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에서 나타난 인식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척도 간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톱킹 범죄자들의 왜곡된 신념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첫 번째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참고하여 군집의 개념적 특성이 잘 드러나고 군집수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3개의 군집으로 선정하였다. 군집분석에 따라 분류된 표본 수는 군집1이 38.0%(30명), 군집2는 36.7%(29명), 군집3은 25.3%(20명)으로 나타났다. K-평균 군집분석을 3개의 군집 수로 지정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스톱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별 인식척도 평균 프로파일



〈표 5〉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군집	인식척도	M	SD	N(%)
1. 성차별(통념)	다면성별의식	56.23	9.555	30(38.0)
	PAI-BOR	19.73	9.325	
	SRPS	45.13	7.305	
	기만/조종	66.47	6.016	
2. 반사회성(충동성)	다면성별의식	46.52	10.221	29(36.7)
	PAI-BOR	21.24	7.219	
	SRPS	53.69	7.760	
	기만/조종	63.07	10.201	
3. 조종(경계성)	다면성별의식	35.10	10.310	20(25.3)
	PAI-BOR	32.35	10.980	
	SRPS	53.30	10.043	
	기만/조종	72.45	8.262	
전체	다면성별의식	47.32	12.901	79(100.0)
	PAI-BOR	23.48	10.385	
	SRPS	50.34	9.103	
	기만/조종	66.73	8.991	

<표 5>에서는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적 유형에 따른 인식척도의 특성이 나타나있다. 군집1에서는 다면성별의식 척도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2에서는 SRPS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3에서는 기만/조종 척도와 PAI-BOR 척도 점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별에 유의미한 인식특성을 토대로 군집1은 성차별(통념) 유형, 군집2는 반사회성(충동성) 유형, 군집3은 조종(경계성)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유형이 유의미하게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유형별 중요한 변수와 집단의 예측률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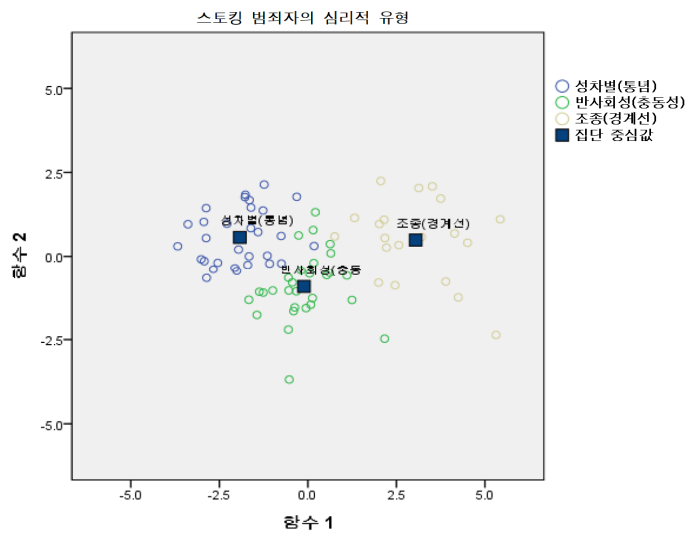
〈표 6〉 스토커 심리적 유형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변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	정준 판별함수계수	구조행렬	
1	다면성별의식	-.1483	-.148	-.424
	PAI-BOR	.575	.063	.283
	SRPS	.535	.065	.192
	기만/조종	.694	.083	.152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 s Lamda	χ^2
	3.899	.892	.135	149.190***
2	다면성별의식	.117	.012	.138
	PAI-BOR	.552	.061	.233
	SRPS	-.1.126	-.137	-.465
	기만/조종	.721	.087	.460
	Eigen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 s Lamda	χ^2
	.512	.582	.661	30.814***

* p < .05, ** p < .01, *** p < .001

3개의 군집에 따라 2개의 판별식이 확인되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Eigenvalue),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da값에 따라 판별식 2에 비해 1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와 구조행렬에서 상관관계값을 통해 3개의 군집을 구분하는데 다면성별의식, 기만/조종, SRPS 척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의 명칭이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판별분석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표 7〉 판별함수계수에 의한 유형분류 적중률

유형 (명)	집단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분류 정확도
	1	2	성차별	반사회성	조종	
성차별(통념) (30)	-1.921	.566	28(93.3)	2(6.7)	0(0.0)	94.9%
반사회성(충동성) (29)	-.111	-.921	1(3.4)	28(96.6)	0(0.0)	
조종(경계성) (20)	3.043	.487	0(0.0)	1(5.0)	19(95.0)	

<표 7>에서는 각 유형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집단 중심치는 성차별(통념) 유형이 -1.921,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이 -.111, 조종(경계성) 유형이 3.043으로 유형 간 평균 차이가 크게 관찰되어 유형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분류의 적중률을 살펴보면, 성차별(통념) 유형이 93.3%,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이 96.6%, 조종(경계성) 유형이 95%가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류정확도는 94.9%로 나타나 비교적 적절하게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적 유형 분류에 따른 성격특성

먼저,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8>에서는 심리적 유형과 성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8〉 심리적 유형에 따른 성별의 차이

(N=79)

성별	유형1	유형2	유형3	total	df	χ^2
	성차별(통념) (N=30)	반사회성(충동성) (N=29)	조종(경계성) (N=20)			
	N(%)	N(%)	N(%)			
남	26(44.1)	22(37.3)	11(18.6)	59(100.0)	2	6.398*
여	4(20.0)	7(35.0)	9(45.0)	20(100.0)		

* $p < .05$, ** $p < .01$, *** $p < .001$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성차별(통념) 유형에 44.1%(26명)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조종(경계성) 유형에 45.0%(9명)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표본 수가 부족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남성의 비율이 높고, 타인에 대한 부적응적 의존도가 강한 조종(경계성) 유형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스톱킹 범죄자들도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전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스톱킹 범죄자 심리적 유형에 따라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MMPI-2 결과를 임상척도, 재구성 임상척도, 성격병리5요인 척도, 내용척도, 보충척도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임상척도와 보충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분석결과에 대해 <표 9> ~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9〉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재구성 임상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RCd	43.73(9.812)	49.86(13.076)	54.80(15.409)	4.786*	3 > 1
RC1	46.87(11.038)	48.10(9.240)	52.10(12.452)	1.466	.
RC2	48.90(10.768)	52.66(12.913)	51.95(11.941)	.812	.
RC3	42.73(10.349)	47.28(9.896)	50.25(12.594)	3.093	.
RC4	45.70(7.953)	52.28(10.198)	48.75(9.613)	3.730*	2 > 1
RC6	45.13(8.224)	47.00(9.787)	49.65(12.184)	1.247	.
RC7	44.50(10.631)	46.38(8.343)	52.60(12.176)	3.880*	3 > 1
RC8	43.60(9.708)	46.28(7.653)	50.90(10.387)	3.790*	3 > 1
RC9	42.10(9.182)	44.34(7.738)	48.20(9.128)	2.979	.

* $p < .05$, ** $p < .01$, *** $p < .001$

<표 9>에서는 의기소침(RCd), 반사회적 행동(RC4), 역기능적 부정정서(RC7), 기태적 경험(RC8)에서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자신이 아픈 상태이며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 환자적 특성을 호소하는 의기소침(RCd) 척도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짜증 등 부정적인 정서에 머물러 있으며 지나친 걱정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집착과 반추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적 부정정서(RC7) 척도특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자아기능과 현실검증력 손상과 연관이 있는 기태적 경험(RC8) 척도특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은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과거 또는 현재에 반사회적 행동이나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법적문제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겪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RC4) 척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0〉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성격병리 5요인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AGGE	45,50(8,266)	47,97(9,730)	46,40(7,301)	.613	.
PSYC	42,37(8,401)	45,21(10,923)	49,50(9,997)	3,184*	3 > 1
DISC	43,47(7,890)	50,59(11,185)	49,40(10,797)	4,222*	2 > 1
NEGE	44,63(9,626)	48,10(8,612)	55,60(13,020)	6,942**	3 > 1 3 > 2
INTR	51,53(12,533)	53,17(12,632)	54,15(13,035)	.275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에서는 정신증(PSYC), DISC(통제 결여), 부정적 정서성(NEGE) 척도에서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기태적 감각을 경험하는 등 현실검증력이 다소 낮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정신증(PSYC) 척도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기능적 부정정서(RC7)척도와 관련이 있으며, 분노와 짜증 등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하고 무기력하면서도 의존적인 특성이 관찰되는 부정적 정서성(NEGE) 척도점수가 성차별(통념) 유형과 반사회성(충동성)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서는 성차별(통념) 유형에 비해 행동통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며 충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통제결여(DISC)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 심리적 유형에 따른 MMPI-2 내용척도의 차이

(N=79)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ANX	48,10(10,176)	51,62(14,120)	53,75(13,238)	1,315	.
FRS	46,60(9,431)	45,62(5,766)	52,30(10,235)	4,041*	3 > 2
OBS	45,07(11,386)	46,69(8,836)	50,45(12,059)	1,540	.
DEP	48,47(12,673)	52,62(15,340)	53,25(15,697)	.875	.

척도	유형1 성차별(통념) (N=30)	유형2 반사회성(충동성) (N=29)	유형3 조종(경계성) (N=20)	F	사후검정
	M(SD)	M(SD)	M(SD)		
HEA	46.77(9.623)	48.07(10.229)	52.90(11.107)	2.271	.
BIZ	43.43(8.439)	45.55(9.701)	46.95(9.259)	.947	.
ANG	47.03(10.417)	44.38(8.178)	53.20(14.159)	4.035	.
CYN	44.87(10.092)	47.10(9.589)	50.05(11.691)	1.510	.
ASP	45.00(11.250)	46.76(9.345)	46.90(9.386)	.301	.
TPA	46.37(9.771)	45.97(8.196)	49.85(11.042)	1.117	.
LSE	44.23(7.986)	47.31(11.301)	50.30(13.731)	1.896	.
SOD	50.57(12.921)	51.69(10.512)	54.65(9.349)	.811	.
FAM	47.20(10.094)	49.69(12.505)	51.00(14.868)	.628	.
WRK	43.87(9.205)	47.31(12.918)	52.90(13.322)	3.545*	3 > 1
TRT	45.27(10.188)	49.03(12.500)	48.25(12.443)	.841	.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에서는 공포(FRS), 직업적 곤란(WRK)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경계성) 유형이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에 비해 특정 상황 및 대상 등 일정한 두려움과 관련된 공포(FRS) 척도특성을 더 보고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성차별(통념) 유형보다 조종(경계성) 유형에서 직업 수행력과 관련된 문제(WRK)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높게 나타난 분노(ANG) 척도는 Levene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05보다 유의값이 작게 나타나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스토킹 범죄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토대로 심리적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성격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척도, PAI 경계선적특징 척도(PAI-BOR),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RPS), 기만/조종 척도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은 성차별(통념) 유형, 반사회성(충동성) 유형,

조종(경계성) 유형 등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분류에 따른 MMPI-2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성격특성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스톱킹 범죄자에게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성격적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격적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스톱킹 범죄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반사회성 특징과 경계성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Meloy & Gothard, 1995). 그리고 MMPI-2에서 나타난 성격특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척도 간 유사한 양상으로 결과가 관찰되어, 각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에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은 여성비하적인 사고가 관찰되는 성차별(통념) 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는 조종(경계성) 유형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스톱킹 범죄양상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톱킹 범죄자의 심리적 유형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성차별(통념) 유형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해 자기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다(Meloy & Gothard, 1995). 그러나 결함적 성격특성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스톱킹 행위에 대한 범죄인식력을 높여줄 경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 또는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스톱킹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은 타인에게 진정한 애착을 갖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스톱킹에 몰두하는 것이 쉽지 않다(Meloy, Rivers, Siegel, Gothard, Naimark, & Nicolini, 2000; Miller, 2012).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표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소거시키는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스톱킹 행위로 인한 목적달성 가능성보다 법적 불이익을 강하게 인지시키면서 법적 조언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는 피해자의 법적 안전망을 가시적으로 강화시켜 피해자를 혼자 상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봉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

적 테두리의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스토킹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유도할 수 있다.

조종(경계성) 유형은 자기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확실한 망상은 아니더라도 다소 현실검증력이 낮은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스스로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신념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관계가 손상될 경우 낮은 자존감과 끊임없는 집착에 의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관계회복에 쏟아내며, 심하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길 수 있다(Boon & Sheridan, 2001; Sheridan & Davies, 2010). 피해자에 대한 집념을 소거시키는 것은 법적인 접근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적 접근이 동반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함께 다루었으며, MMPI-2를 이용한 성격특성을 확인하여 스토킹 범죄자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본 수집의 한계로 모든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의 표본 수집이 저조하여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보다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표본이 추가적으로 수집되거나, 범죄행동과 심리적 유형 간 연관성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심리적 특성에 따른 범죄행동을 예측하고,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22). 판결문 분석을 통한 스톱킹범죄의 특성과 진단-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1), 55-84.
- 강소영, 김한솔. (202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톱킹행위의 유형 분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5), 159-185.
- 경찰청 보도자료. (2023.5.2.) 경찰청-여가부, 스톱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해나간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30501152832394&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고명수. (2023). 스톱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입법학연구, 20(1), 95-118.
- 김기영, 전명식. (1994). SAS 판별분석 및 분류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42-47.
- 김민경, 이장한. (2010). 기만/조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2(3), 1339-1349.
- 김성희, 성현준. (2021). 스톱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49-74.
- 김잔다. (2015). 스톱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135-165.
- 심혜인, 김소현. (2023). 스톱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9(1), 107-12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2-204.
- 이동길. (2016). 스톱킹 통념이 스톱킹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범죄유형 및 수감기간에 따른 남성 출소자의 MMPI-2 반응 특성 비교. 재활심리연구, 26(2), 19-35.
- 이수정, 공은경, 공정식. (2006). MMPI에 근거한 국내 남자 살인범 성격프로파일링 및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47-64.

- 이수정, 공정식. (2007).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 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분석. *한국경찰학회보*, 9(1), 203-225.
- 이수정, 김재경. (2011). 정신병질 자기보고검사(SRPS)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2(1), 35-47.
- 이현정.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4), 265-284.
- 임인혜, 윤민지, 유성경, 김은석, 손은영, 윤은주. (2018). 한국판 가부장 신념 척도 (PBS-K)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4), 125-143.
-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MMPI-2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49-1068.
- 한동효, 허영희. (2022). 현행 스톱킹처벌법의 문제 진단과 입법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30(1), 225-256.
- 한민경. (2021). 법정에 선 스톱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톱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65-92.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tholomew, K., Henderson, A., & Dutton, D.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abusive intimate relationships. In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 Routledge Press, 67-8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 p>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 , 9(2), 291-319.
- Boon, J. C., & Sheridan, L. (2001). Stalker typologies: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1(2), 75-9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 Canter, D. V., & Ioannou, M. (2004). A multivariate model of stalking behaviours. *Behaviormetrika*, 31(2), 113-130.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hristie, R., & Geis, F. L. (1970). Chapter I-Why Machiavelli. *Studies in machiavellianism*, Academic Press, 1-9.
- Davis, K. E., Ace, A., & Andra, M. (2000). Stalking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partners: Anger-jealousy, attachment insecurity, need for control, and break-up context. *Violence and Victims*, 15(4), 407-425.
- De La Ronde, C., & Swann Jr, W. B. (1998). Partner verification: Restoring shattered images of our inti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374.
- Dunlap, E. E. (2010). *Stalking myth acceptance: An investigation of attitudinal constructs associated with gender differences in judgments of intimate stalking*. University of Kentucky.
- Dunlap, E. E., Lynch, K. R., Jewell, J. A., Wasarhaley, N. E., & Golding, J. M. (2015). Participant gender, stalking myth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ing in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pproach. *Psychology, Crime & Law*, 21(3), 234-253.
- Geberth, V. J.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Vol.5), CRC Press.
- Geis, F. L., & Moon, T. H. (1981). Machiavellianism and de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766.
- Gozna, L. F., Vrij, A., & Bull, R. (2001).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s of lying in everyday life and in a high stake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203-121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Cluster analysis, Chapter 9 in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oltzworth-Munroe, A., Stuart, G. L., & Hutchinson, G. (1997). Violent versus nonviolent husbands: Differences in attachment patterns, dependency, and jealous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3), 314.
- Kernberg, O. (1984).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Psychotherapeutic strateg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ienlen, K. K., Birmingham, D. L., Solberg, K. B., & O'Regan, J. T. (1997).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25(3), 317-334.
- 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Academic Press, 1-23.
- Meloy, J. R., & Gothard, S. (1995).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m J Psychiatry*, 152(2), 258-263.
- Meloy, J. R., Rivers, L., Siegel, L., Gothard, S., Naimark, D., & Nicolini, J. R. (2000). A replication study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1), 147-152.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9). An attachment and behavioral systems

- perspective on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1), 7-19.
- Miller, L. (2012). Stalking: Patterns, motiv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6), 495-506.
- Mirsky, A. F., & Siegel, A. (1994). The neurobiology of violence and aggression(Vol.2).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 Mohandie, K., Meloy, J. R., McGowan, M. G., & Williams, J. (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147-155.
- Mullen, P. E., & Pathé, M. (1994). Stalking and the pathologies of lov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8(3), 469-477.
- Mullen, P. E., Pathe, M., & Purcell, R. (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n, P. E., Pathe, M., Purcell, R., & Stuart (1999). Study of stalk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244 - 1249.
- Patton, C. L., Nobles, M. R., & Fox, K. A. (2010). Look who's stalking: Obsessive pursuit and attachment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282-290.
- Pinel, E. C., & Swann Jr, W. B. (2000). Finding the self through others: Self-verification and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132-152.
- Serin, R. C. (1991). Psychopathy and violence in crimina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4), 423-431.
- Sheridan, L. P., Blaauw, E., & Davies, G. M. (2003). Stalking: Knowns and unknowns. *Trauma, Violence, & Abuse*, 4(2), 148-162.
- Sheridan, L. P., & Davies, G. M. (2010). Stalking. In J. R. Adler, & J. M. Gray (Eds.), *Forensic psychology: Concepts, debates and practice(Vol.2)*, New York: Willan Publishing.

- Skoler, G. (1998). The archetypes and psychodynamics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Academic Press.
- Spence-Diehl, E. (1999). *Stalking: A handbook for victims*. Learning Publications, Incorporated Press.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ing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1), 64-86.
- Stets, J. E. (1995). Job autonomy and control over one's spouse: A compensatory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258.
- Stets, J. E., & Burke, P. J. (2005). Identity verification, control, and aggression in marriag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2), 160-178.
- Stryker, S., & Burke, P. J. (200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84-297.
- Swann Jr, W. B. (1990). To be adored or to be known?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ET Higgins & R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2, 408-448.
- Turner, J. H. (1987). Toward a sociological theory of motiv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27.
- Turner, Z. (2020). *Stalking and Attachment Theory: Causes and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Williamson, S., Hare, R. D., & Wong, S. (1987). Violence: Criminal psychopaths and their victi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19(4), 454.
- Zona, M. A., Sharma, K. K., & Lane,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8, 894-90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sychological Types Related to Distorted Perception
of Stalking Offenders and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Sexism and MMPI-2

Hye Ji Lee* · Soo Jung Lee**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lking offenders in more detail to understand stalking crimes that appear in various behavior patterns. First, based on psychological theory and distorted perception, we tri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perpetrator. Next, the types of stalking offenders studied in Korea and abroad were identified, and the types of stalking offenders in Korea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MMPI-2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type.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tion analysis on 79 domestic stalking offenders, they were divided into types of gender discrimination(misconception), antisocial(impulsivity), and manipulation(borderline). A biased view of women was observed in the type of gender discrimination (misconception), and antisocial(impulsivity) type was found to have antisocial behavior and lacked behavioral control. The manipulation(borderline) type was found to have low self-esteem and high anxiety. Based on these results, we tried to propose ways to reduce the risk of recidivism according to each type.

❖ Key words: Stalking, Distorted perception, Psychological type, Personality, MMPI-2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in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in Kyonggi University.

